

올여름 극장가 韓영화 빅매치 '2강1중2약'



1년 중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들이고, 여름 빅매치 구도가 마침내 완성됐다. 2개의 블록버스터와 1개의 히리급 영화, 2개의 작은 한국영화

블록버스터급 '군함도'·'택시운전사' 주목 'VIP'·'청년경찰'·'장산범' 등 관심 쏠려

합도(류승완 감독, 외유내강 제작)와 휴먼 영화 '택시운전사' (장훈 감독, 더 램프 제작)다. 제작 단계부터 화제를 모은 두 작품은 각각 300여 원, 150여원이 투입됐고 황정민, 소지섭, 송중기, 송강호, 토마스 크레취만, 유해진 등 총무로 톱스타가 총출동한 한국판 블록버스터다.

스토리 규모 또한 상당하다. '군함도'는 일제 강점기, 일본 군함도(하시마, 군함 모양을 닮아 군함도라 불림)에 강제 징용된 후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하는 40여명의 조선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비극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픽션을 가미해 드라마틱한 감동과 화려한 볼거리를 최대치로 끌어낼 전망이다. 그리고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가 폭금 전에 광주를 다녀오면 큰돈을 준다는 말에 폭금 기사를 태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광주로 향하는 이야기를 다뤘다. 이 역사 시대의 아픔을 스크린에 녹여낸 실화 영화로 송강호의 명연기를 주축으로 탄탄한 스토리가 더해져 진한 여운을 남길 예정이다.

2강 체제를 구축한 '군함도'와 '택시운전사'에 대한 관객의 기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태. 오는 28일 '군함도'가 여름 시장의 포문을 열고 '택시운전사'가 내달 2일 흥행 바통을 이어받아 쌍연만 기록을 도전할 계획이다.

여름 극장가 후반 주자로 나선 '브이아이피'는 '신세계'로 범죄 액션 영화의 신세계를 연 박훈정 감독의 신작으로 제작 단계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장동건, 김명민, 박희순과 이종석이 캐스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총무로 새로운 조합을 구축하며 눈도장을 찍은 상태다. 65억원의 순제작비를 들여 만든 '브이아이피'는 앞선 두 블록버스터에 이어 흥행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형급 영화다.

대작들 사이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한 소형급 영화 역시 한 번쯤 주목해볼 만 하다. 올여름 등판하는 영화 중 가장 약소한 모양새를 갖춘 '청년경찰'은 'VIP'와 '장산범'에 이어 흥행을 기대하게 만드는 중형급 영화다.

주한 감독, 무비락 제작)과 공포 스릴러 영화 '장산범' (허정 감독, 스튜디오 드림캐처 제작)이지만 내실만큼은 탄탄한 알짜배기들이다.

'택시운전사'에 이어 내달 9일 출시표를 던진 '청년경찰'은 믿을 것이라곤 전공 서적과 짧은 뿐인 두 경찰대생이 눈앞에서 목격된 납치사건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청춘 수사 액션이다. 박서준, 강하늘이 가세했고 '안내전' '코알라'를 연출한 김주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올여름 유일한 휴먼 코미디인 '청년경찰'은 총제작비 70억 원으로 제작된 한국영화, 무겁고 진지한 스토리에 지친 관객에게 활력이 될 뜻밖의 청춘극으로 극장이 빈틈을 노리는 중이다.

올여름 유일한 코미디로 마케팅에 나선 '청년경찰'과 반대로 올여름 유일한 공포 스릴러로 초점을 맞춘 '장산범' 또한 숨겨진 기대작이다. 내달 17일 개봉일을 확정된 '장산범'은 폭소리를 흉내 내 사람을 흘린다는 장산범을 둘러싸고 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 영정아, 박혁권, 하진, 신리아, 방유실, 이준혁 등이 가세했고 '술바꼭질'의 허정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순제작비 38억원으로 제작된 '장산범'. 올여름 라인업에 오른 영화 중 가장 소박한 제작비를 자랑하는 소형급 영화로 규모는 소박하지만 무더위를 날릴 유일한 공포물로 여름 극장가에 호기롭게 등장했다. 원조 '스릴러 퀸' 영정아가 '장화 홍련' (03, 김지은 감독) 이후 14년 만에 스릴러로 돌아와 관심을 끌고 있다.

폭리와 사이에서 고군분투할 다윗 '청년경찰' '장산범'이 여름 극장가 반전 드라마를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박2일' 농촌 일손도 돕고 힐링도 하고 '워킹 홀리데이' 참맛



'1박 2일' 멤버들이 농촌의 일손을 도와주고 되려 힐링을 받는 '워킹 홀리데이'의 참맛을 느끼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9일 오후 방송된 KBS2 '해피선데이 1박 2일 시즌7'는 가뭄이 들어 수심에 찬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강원도 영월로 떠난 '워킹 홀리데이'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특히 자연인과 김준호·윤시운, 스태프들이 얼음이 동동 띄워진 매설에이드를 나눠 마시며 힐링을 하는 장면에서는 분당 최고 시청률이

건 제가 더 많이 일했어요"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와 함께 차태현은 식혜부터 감자전, 푸짐한 밥상까지 일을 하려고 하면 자꾸 무언가를 먹으라고 하는 어머니로 인해 여섯 번의 새침을 즐기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데프콘 김종민은 자상과 엄격을 넘나드는 반전매력을 가진 할머니와 함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없이 자상하던 할머니가 신중하게 해느라 느려진 데프콘 김종민을 향해 "아니 이거 하고 얼른 황토 해야죠"라며 엄격한 작업반장의 모습으로 풀변해 웃음을 유발한 것 또한 김종민은 일 능숙하게 황토를 발라 칭찬을 받는 데프콘을 보고 손을 도우며 승부욕을 불태우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의욕과는 달리 우수수 쏟아져 내린 황토에 좌절하는 표정으로 웃음을 더했다. 뿐만 아니라 윤시운 정준영은 걸크러시가 느껴지는 할머니와 함께 해 손발이 척척 맞아가는 모습으로 관심을 모았다. 영월 현지어로 이야

기 하는 할머니의 말에 따라 차근차근 두부를 만들어간 것. 더불어 윤시운은 자신을 모르는 할머니에게 "좀 더 열심히 할게요"라며 애교를 발사하는가 하면, 정준영은 곤드레 베기에 나선 정준영은 할머니에게 자상한 손자의 모습으로 보는 이들에게 미소 짓게 만들었다. 반면 '준호 형은, 저 세상으로 갔어'라는 멤버들의 걱정과는 달리 유쾌한 늙다리 자연인의 자태가 그려져 시선을 땔 수 없게 했다. 초반 자연인은 "아무도 없는 산 속에 집 하나 짓고 사는 게 내 소원이었어"라며 자연인이 된 이유를 밝힌 뒤 "똥이 전부야"라는 반전 멘트를 더해 폭소를 유발했다. 이어 김준호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집안일을 소개해주는가 하면, 소시지와 참치캔 등이 즐비한 외제기 자연식으로 식사를 준비해 웃음을 자아냈다. 무엇보다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호수에 김준호는 "우와~ 최고다!"라며 여흥을 즐기는 한편, "이러실 뻔엔 서울로 가시는 게..."라고 말해 폭소를 더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 또 한 명의 자연인 일꾼이 뽀뽀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일손이 딸려요. 얼른 한 명

더 올라오세요"라는 자연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멤버들은 "우리도 엄청 바빠~ 나는 오후 일이 예약이 돼 있거든"이라며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내 사다리 타기로 윤시운이 당첨돼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증을 유발했다. 특히 이후 윤시운이 챙겨온 얼음과 사이

다로 인해 힐링하는 김준호·윤시운과 자연인, 그리고 스태프들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시원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1박 2일' 멤버들은 일손을 도우러 갔다 되려 힐링을 받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惠山이 바라본 오늘의 운세 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음력 5월 18일) ★ 혜산철학연구원 010-2622-2350 ★

<p>▶황소 36년생 바깥출입 삼가 48년생 부부의 정이 더욱 돈독해진다. 60년생 문서 계약운이 있다. 72년생 손재수에 조심해야 한다. 84년생 꿈을 접지마라.</p>	<p>▶황소 40년생 혼란스러워도 점차 맑아진다. 52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 64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76년생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88년생 호도하는 마음을 잊지마라.</p>	<p>▶황소 32년생 귀인을 정성껏 맞이하라. 44년생 믿음아래 덕을 받는다. 56년생 목표를 크게 잡고 멀리보라. 68년생 근신하고 자숙할일이 생긴다. 80년생 합심하면 이득이 크다.</p>
<p>▶황소 37년생 외출을 삼가라. 49년생 노력과 이득이 비례한다. 61년생 주위의 도움으로 일이 성사된다. 73년생 작은 성과에도 크게 만족하라. 85년생 첫술에 배부르지 않는다.</p>	<p>▶황소 41년생까지 집 주위를 맴돈다. 53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 65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77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 89년생 욕심을 버려야 뜻이 이룬다.</p>	<p>▶황소 33년생 출입을 삼가라. 45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는다. 57년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도 집착은 삼가라. 69년생 내 자신을 알고 맘을 고요히 하라. 81년생 오로지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p>
<p>▶황소 38년생 만사가 해결된다. 50년생 산행을 삼가라. 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74년생 이거다 싶으면 밀고 나가라. 86년생 사소한 감정에 주의하라.</p>	<p>▶황소 42년생까지 집 주위를 맴돈다. 54년생 금전 거래에 주의하라. 66년생 누적된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라. 78년생 순풍에 돛을 높이 올린다.</p>	<p>▶황소 34년생 마음을 고요히 하라. 46년생 뜻밖의 재물이 있다. 58년생 자신의 영역이 커짐을 느낀다. 70년생 낯말은 새가 듣고 방말을 쥐가 듣는다. 82년생 정성을 다하면 수확은 분명 있다.</p>
<p>▶황소 39년생 재물을 잘 관리하라. 51년생 새로운 사람을 소개 받는다. 63년생 부부관계를 원만히 하라. 75년생 기다림을 알아라. 87년생 과한 욕심을 버리고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라.</p>	<p>▶황소 43년생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라. 55년생 건강에 더욱 유념하라. 67년생 이사에 신중하라. 79년생 끝까지 밀고 나가라. 91년생 열심히 하면 진로 걱정은 없다.</p>	<p>▶황소 35년생 미련을 버려라. 47년생 큰 수확을 이룰 것이다. 59년생 계약은 절대 안된다. 71년생 무리수는 금물이다. 83년생 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거든 멈추지 마라.</p>